

실버산업의 발전방향

文顯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실버산업의 등장 배경

21세기에는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로 노인의 가족부양기능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노인층의 경제력은 향상된다. 현재 40, 50대가 노인층이 되는 21세기에는 경제력이 있고 학력 수준이 높은 노인층이 형성될 것이다.

실버산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주거산업, 노인의료, 노후대비를 위한 각종 금융보험상품, 노인레저산업, 노인용 복지

기기 및 생활용품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아직은 생소한 말이다. 그러나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층의 구매력이 향상되면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정상의 한계로 그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나타나게 될 다양한 복지 수요는 실버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공급될 전망이다.

표 1. 인구고령화의 진행

(단위: 천명, %)

	1995	2000	2010	2020
총인구(A)	45,093	47,275	50,618	52,358
65세 이상 인구(B)	2,657	3,371	5,032	6,899
A/B	5.9	7.1	9.9	13.2
75세 이상 인구(C)	842	1,093	1,782	2,620
B/C	31.7	32.4	35.4	38.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2. 실버산업의 발전방향

가. 기본방향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육성될 실버산업은 그 기본방향으로 첫째,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실버산업은 산업활동인 동시에 노인이 대상이 되는 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실버산업의 발전에는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노인복지서비스는 사회구조의 변화, 복지서비스 수요의 질적 변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며,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창의성과 효율성을 지닌 민간기업의 참여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의 산업화는 복지수혜의 불평등, 그리고 자칫하면 민간부문의 팽창이 공공부문의 복지기능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실버산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는 실버산업의 육성이다. 다른 분야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노인과 관련된 제도나 산업은 우리 문화와 정서를 유지하면서 노후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방향에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문화 전통을 발전시키면서 노후생활을 활력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실버산업이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로 실버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노후의 삶을 대비하는 국민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생 80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정년퇴직후를 제2의 인생으로 생각하여 노후를 보람있고 안락하게 보내기 위하여 젊어서부터 노후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으로도 여러가지 노후보장성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

나. 분야별 발전방향

1) 노인주거산업분야

우리나라도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후생활에 적합한 노인주택, 유료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등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노인주거시설은 노인의 건강상태, 경제력,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199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설치·운영자의 폭을 확대하였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로서 국민연금에서 매년 1,000억원을 비교적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투자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여러가지 형태

의 노인주거시설에 대하여도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제·금융상의 지원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용 택지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인주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택지개발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노인계층이 요구하는 주거시설 설치지역으로는 도시 혹은 도시 근교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상황은 택지가 부족한 형편이므로 토지개발공사 혹은 주택공사에 의한 택지공급시 일정 부분을 노인주거시설로 지정해 준다거나, 도시 근교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녀세대와 함께 사는 노인을 위하여 3세대 동거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3세대 동거주택에 대한 금융혜택을 부여한다든가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3세대 동거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하여 노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양로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양로원이란 무의무탁한 노인을 무료로 입소시켜 생활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양로원의 낮은 삶의 질, 식사하고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 있는 인생 종착역에 와 있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양로원의 사회적 이미지는 대단히

실버산업은 산업활동인 동시에 노인이 대상이 되는 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버산업의 발전에는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정적이다. 선진국의 양로원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서양에서는 노인주택을 통칭 은퇴주택(Retirement Housing)이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노인홈이라 부른다. 우리나라도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2) 재가서비스분야

재가서비스는 노인의료비 부담의 과중, 노인의료시설의 부족, 민간자본의 요양시설 기피현상 등에 대한 대체 서비스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저하되는 현실에서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선진국에서는 재가서비스로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이 참여하여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받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복지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탈시설화정책의 일환으로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극히 부분적으로 가정봉사원제도가 도입되어 노인을 돌

보는 일을 유료로 하고 있는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재가서비스의 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급여에 노인개호비용을 포함시킨다거나, 보다 포괄적으로 개호보험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혼자 살 수 없는 노인을 사회가 떠맡는다는 취지에서 국민이 일정액의 개호보험료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부분적인 조치로는 사회복지관과 현재 시범실시중인 보건복지사무소의 기능연계를 통하여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했던 사회복지법인이 이 사업을 유료로 추가하고자 할 때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의료분야

우리는 아직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민간투자가 매우 저조하다. 노인환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간호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고령화사회의 진입과 함께 나타날 노인의료 수요의 급증에 대비하여 노인의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양적 질적으로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병원을 이

용하는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 앞으로 국민의료비 중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질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과 민이 공동 출자하는 노인전문병원과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과 같이 노후케어보험을 활성화하여 제도적으로 비용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 금융보험분야

금융보험분야는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자금의 확보와 건강유지를 위한 보험, 노인의 보유자산 관리 및 운용 등이 포함되는 분야로 선진국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이나 건강유지를 위한 금융보험상품이 발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후를 대비한 국민의식이 점차 바뀌어지면서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성 금융상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인연금은 저축증대와 노후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정부의 세제지원을 받고 있으며 금융분야의 유망한 실버상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개인연금 판매추이를 보면 1995년 이래 3개월마다 30~40%의 신장을 보여 95년 9월 현재 6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소득보장 이외에도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노후의 질병은 장기간 치료

와 요양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비의 일부보장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건강보험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거동불능상태이거나 치매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호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도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많다고 본다. 한 예로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권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은 주택뿐인 경우가 많은데 노후 생활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연금보험에 가입토록하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5) 복지기기분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노인이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인이 재활을 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기기가 필요하게 된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기기를 생산하도록 추진해 왔으며, 성실한 업자에게는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시킨 후 완성된 제품을 구입하여 노인시설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넓혀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복지기기 개발을 위한 전문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저리 용자 및 세제상

재가서비스의 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급여에 노인개호비용을 포함시킨다거나, 보다 포괄적으로 개호보험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혜택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전시장 및 판매장을 설치하여 교육과 홍보사업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여가활동분야

고령자의 여가활동분야는 교양학습, 스포츠, 취미, 오락,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서 활력있는 고령사회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건강하고 보람있는 여가활동은 노인복지의 3요소(건강, 경제, 여가)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에서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실버산업의 하나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노인여가를 위한 상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첫째, 영리추구를 최소화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노인은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고 관습적이고 문화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노인특성을 연구하여 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단순한 재미보다는 생산적이고 학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참여하는 노인 스스로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